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규철 레 오 952-836-7117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잠언 31:10-13, 19-20, 30-31	제2독서	테살로니카1 5:1-6	복음	마태오 25:14-30
--------	------	------------------------------	------	-----------------	----	-----------------

**◎말씀**                      **탈렌트의 사용처-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2022년 말 통계로 세계인구가 80억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중국이나 인도 등 등록되지 않은 인구까지 예상하면 90억 이상이라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걱정하고 인구가 줄어 들어서 심각하다고 합니다만 세계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식량이 인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곡물생산량은 기후변화 등으로 10년 전부터 정체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인구의 20%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아사자만 8억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쪽에선 비만 인구가 10억명이 넘고, 과체중 인구는 30억명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너무 많이 먹어 병이 오고, 한쪽에서는 너무 먹지 못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자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탈렌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전례력으로 한해를 마무리 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은 탈렌트를 잘 사용하였는지’ 성찰해 보면 어떨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난한 이의 날을 맞이하여 담화 서두에 “가난의 큰 강이 우리 도시를 가로지르며 범람할 정도로 차오르고 있다.” 며 “우리의 도움과 지원, 연대를 간청하는 형제자매들의 요구가 너무나 커서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 진단하십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지는 듯하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부와 가난의 강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황님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비아에게 전해진 토빗의 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토빗 4,7)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빈곤 퇴치를 위해 “개인적으로 참여”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탈렌트가 가장 값지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함을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뵈고, 그들의 요구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 주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이해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그 신비로운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198항) 신앙은, 모든 가난한 이가 하느님의 아들딸이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하느님께서 받은 탈렌트를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지 말고 가장 가치있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 자	전례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11월21일(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오후7시30분	주일헌금	\$ 1,152.00
			교무금	\$ 4,020.00
11월22일(수)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들 기념일	오전 8시	성소후원	\$ 280.00
			자선비	\$ 210.00
11월23일(목)	연중 제33주간 목요일 (추수감사절)	미사없음	성물방	\$ 440.00
11월24일(금)	성 안드레아 동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미사없음		
11월25일(토)	연중 제33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합계	\$ 6,102.00
11월26일(주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37명 성인: 140명
교무금 봉헌자	송민자, 이의웅(11-12)지영욱, 정영규(10-12)최재진(9-12)김옥륜, 이복임(7-12)오중신(1-12)안성수, 김은영, 황원호(10-11) 이대원, 이경희(9-10)김도철((7-9)김순애, 김규철, 김평옥, 전우성, 이유빈, 안강순(11)윤재경(12)			

●신앙생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평화의 인사"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로를 소개하고, 원래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로 안부를 물음으로써 유대감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사의 의미는 사실 가만히 보면 단순한 안부 나눔이 아닙니다. 한 존재와 또 다른 한 존재, 그리고 한 사람의 지난 삶의 역사가 또 한 사람의 삶의 역사를 만나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입니다. '나'와 '너'를 떠나 '우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매 미사 때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미사 때 이 인사는 왜 하는 것일까요? 사실 미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특히 주일 미사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신자들도 있으니 미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반갑게 인사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영성체 전에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눌까요?

미사 때 신자들이 서로 나누는 평화의 인사는 로마서(16,16)에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이나 베드로 1서(5,14)에 나오는 "사랑의 입맞춤"이란 의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사실 이 평화의 인사는 화해와 일치의 의미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영성체를 통해 성체를 모시며 그리스도와 일치하기에 앞서, 먼저 신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함으로써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평화의 인사를 예물 봉헌 전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과 화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태 5,23-24 참조). 이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치릴로(315-387) 성인은 평화의 인사를 화해의 표시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이 평화의 인사를 통해 하느님 앞에서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 예식은 7세기경부터 영성체 전으로 그 순서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화해와 평화를 통한 서로 간의 일치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영성체 전에 이런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신자들 간의 일치를 넘어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평화의 인사는 궁극적으로 '신앙인 공동체의 일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향한 예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인사는 단순히 주위 사람들과 가볍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인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나누고 기원하는 기도이자 서로를 향한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천상 예루살렘에서 누릴 종말론적인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일치하여 걸어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전례부장 916-990-6531/사무장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윤희 밀지다
연	김초지 마리아 영혼	송명자 아가다			
연	이규청 제노비아 영혼	이호영 베드로	생	김상돈 도미닉 부제님과 김경수 프란체스카 영육건강	리노공소
연	(기일) 함영순 마리아 영혼	최정신 데레사			
연	김현순, 박주성, 주영만 양한욱 요셉 영혼	윤재경 알베르토	생	김경수 프란체스카 빠른 회복	고원석 바오로 고공자 벨라뎃다
연	정황자 세실리아, 한서임 소피아 남필레 마리아, 윤태욱 안나 영혼	이나숙 데레사	생	(생일) 서주연 마리아 영육건강	소화데레사회
			생	성소후원회 회원들 영육건강	성소부
			생	(세례축하) 데레사 하윤 솔터즈 영육건강	익명
생	김경수 프란체스카 빠른 회복	김정애 헬레나	생	김상돈 도미닉 부제님과 김경수 프란체스카 건강	임정남 실비아
생	김기상 바오로 영육건강	강시릴로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새 사목회장 추천을 위한 9일기도 (묵주기도)

일시: 12일(주일)부터 모든 미사 30분전

지향: 사목회장 추천

2. 본당 꾸리아 모임

일시: 19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각 뵈레시디움 4간부님들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3. 본당 울뜨레아 모임

일시: 19일(주일) 교중미사후 PM12:45 구사제관

본당 꾸르실리스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단체활동 / 구역모임

사회복지부: 19일(주일) 노라플레이스 음식봉사

7구역: 19일(주일) 교중미사후 루카방

9구역: 19일(주일) 교중미사후 마태오방

5.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미사안내

23일(목)~24일(금) 이틀간 평일미사 없습니다.

\*\* 25일(토) 저녁7시반 특전미사는 있습니다.

6. 사목회 임시총회

일시: 26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안건: 24-25년도 사목회장 추천

참석대상: 사목임원, 구역장, 재단체장

모든 참석자들께서는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 사랑의 급식 안내 (리노공소 후원)

일시: 19일(주일) 모든 미사후. 친교실

식대: 1인 \$5 (빠다귀해장국) 담당구역:2구역

사랑의 급식 도네이션 희망자께서는 기부금을

사무실 또는 2구역장님께 전달 바랍니다.

8. 교구2차헌금

일시: 19일(주일) 모든 미사

목적: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9. 성탄 음악제 참가 신청 (접수중)

행사일시:25일(월) 성탄 낮미사 직후 친교실

문의: 행사부장 정영규 안토니오

차장 안선미 미카엘라

10. 성가대원 모집

찬양을 통해 미사전례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일시: 매 주일 오전10시. 성가대방(구사제관)

(주일미사 및 성탄미사 성가연습)

문의: 성가대 총무 양경민 안드레아

11. 매일미사책 연간구독 신청 (2024년)

가격: (대)\$120/1년 (소) \$84/1년

(부활시기 등 가격인상시에는 차액을 납부하셔야 구독 가능합니다)

문의: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12. 교무금 봉헌 (2023년)

금년도 교무금은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완납을 부탁드립니다. (교무금 봉투가 없는 분께서는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13. 김장김치 판매합니다 (공소부)

일시: 19일(주일) 모든 미사후. 친교실

가격: 배추김치(포기/써) \$25/1병

깍두기 (큰 병) \$20/1병

(작은병) \$12/1병

<< 주일학교 >>

주일학교 휴강안내

일시: 26일(주일)-추수감사절 연휴, 미사는 있습니다.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전례봉사	연중제33주일(11/19)	그리스도왕대축일(11/26)	대림1주일(12/3)	대림2주일(12/10)
미사해설	김선식 / 김은영	오민정 / 정미정	박문교 / 김선영	이주연 / 최금주
복사	황건영.김대용/윤지현	장현철 엘리야	정준영.김현우/김병수	김태민.정준영/최준우
헌금위원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http://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916-728-8585  
KP market, #411

### 서은미 부동산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mailto: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2110 Broadway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유정임 가브리엘라  
916-996-5703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

###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된장.도토리 국수.참기름.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

###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은행주소: 9500 Micron Ave Suite 130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